

개혁주의와 소비주의

- 소비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¹⁾

양희석²⁾

<논문초록>

종교개혁으로 인해 중세 후기의 상업은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는 칼빈의 영향이 컸다. 칼빈은 상업도 성직이나 다름없으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서구에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거대 자본주의체제가 구축되었다. 즉,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는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의 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대량소비, 과소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의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소비주의는 가장 두드러진 세속주의의 한 현상으로 등장했다. 소비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현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속적 물신주의라 하겠다.

중세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신자의 신앙을 갱신하고, 그들을 성경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경건하게 살도록 했던 경건 운동이었다. 오늘날 거대한 소비 맘몬주의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주의의 원리와 정신이 요청된다. 칼빈의 정신과 개혁주의 원리는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둘 것이며,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며,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개혁주의, 소비주의, 하나님의 주권, 칼빈의 중심사상, 경건의 실천

1)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2)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I. 서언

칼빈이 서구 자본주의의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칼빈은 상업도 성직이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부지런한 활동을 통해 부를 증식시키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이런 그의 가르침은 당시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었고, 후기 중세의 활발한 상행위를 더해 갈 수 있었다. 이것은 서구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는 중세의 상업자본주의와는 달리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의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는 그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과소비를 유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교개혁 당시의 근검, 절약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고, 현대 사회는 소비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현대인들은 중세와 비교해 볼 때, 소비에 대한 인식이 사뭇 다르다. 아끼고 절제하는 것 보다 가끔씩 소비하고, 많이 쓰는 것이 현대인의 권리인 양 아무런 거리낌 없이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시대의 풍조는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오게 되었고, 교회도 소비지향적인 경향을 추종하고 있다.

소비주의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소비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세속주의의 하나로서 맘몬주의, 우상숭배나 다름없다(윤종훈, 258). 소비주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보다 물질과 돈을 더 중시하고, 그들을 그 속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소비주의는 현대 기독교인과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속주의이다. 그것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기며, 정부의 정책과 활발한 기업 마케팅 활동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 와 있기 때문이다(김선일, 22).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고무시켰던 상업 활동이 오늘날 거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비주의로 확산되리라고는 그들 중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신앙을 갱신하고, 신자를 성경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경건하게 살도록 하고자 한 영적 혁신 운동이었다. 그런 의도와는 달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과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소비주의의 확산 현상을 살펴보고,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주의의 원리를 통해 소비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문제의 제기

1. 세속주의의 도전

오늘날 기독교와 세계의 교회는 그 어떤 강력한 권력 보다 더 강력한 위협에 도전받고 있다. 이 위협은 세속주의의 발흥이다. 세속주의는 그것의 정도와 강도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왔다(Osterhaven, 224). 유럽에서는 현 시대를 종종 후기 기독교 시대라 부른다. 미국은 교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별로 부요하지 못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 시대의 탄식할만한 세속주의 때문이다.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삶의 모든 부문에서 영적인 차원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지난 3세기 동안에 서구 사회는 근본이 내려 앉듯이 세속성에 의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었다.

세속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려는 경향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 보다는 철학자, 과학자, 도덕가들의 무익한 이성에 의존하면서 기독교의 원리들을 거부했던 것이다. 세속주의는 신앙보다는 이성에 의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Osterhaven, 224). 반 데르 레우(G. Van der Leeuw)는 기독교의 쇠퇴를 세속화와 인본주의의 결과였다고 지적했다(Osterhaven, 223). 현세적 활동은 하나님이 허용하실 뿐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다. 하지만 세속성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신앙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 신념, 방법, 생활방식을 만들 경우에 우리를 타락시키는 영혼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Horton, 263).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들에 의해 이교와 이단으로 변질되었다. 이런 종교적 퇴폐와 후퇴로부터 건져낸 것이 종교개혁이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종교적 쇠신은 이루었지만, 그 후에 등장한 계몽주의와 인본주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인간 중심과 물질숭상의 소비주의로부터 더 더 강력한 도전을 받아 왔다.

2. 개혁주의의 필요성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거세다. 물신주의, 소비주의, 이성주의, 과학적 판단, 이단과 이교의 유희, 물질적 풍요, 문화적 도전, 불신풍조의 조장, 권위와 거룩함을 경시하는 풍조로 인해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지 않게 되어 점차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경건에 이르는 삶이 사라지고, 세속주의, 스포츠, 미디어의 광풍, 경제적 풍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 산업 및 정보화 혁명, 기술의 진보, 문화적 발달 등으로 인해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물질에 취해 하나님을 잊어 버렸다. 현세의 달콤함이 그들을 세속주의의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

중세의 종교개혁은 비단 천주교로부터만 교인을 구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과 사회를 하나님께로 돌려 놓으려는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혁신이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예배, 교회의 회복, 삶의 회복, 소명, 경건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대한 운동이었다. 그런데 당시의 물질은 오늘날처럼 풍요롭지는 못했다. 중세 상업과 상인의 활동이 활발하긴 했지만,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을 통해 대량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대 자본주의 체제는 아니었다.

오늘의 상황이 당시와 다른 점은 물질과 소비가 지배하는 거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점이다. 기업의 광고와 정부의 정책을 통해 소비주의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의식과 삶 속으로 들어 와 자리 잡고 있다. 소비주의의 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광고는 물질의 신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육신적인 평안과 쾌락을 조장하고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강성영, 204).

그런데 종교개혁의 세계관을 근간으로 형성된 기독교 문화는 계몽주의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쇠락의 길을 걸어오긴 했지만, 종교개혁은 현대 문화에 많은 유익을 끼쳤다(Horton, 294). 개혁은 중세의 종교개혁 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는 천주교라는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신자들을 지켜냈지만, 오늘날엔 세속주의로부터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구해 내야 한다.

그저 단순히 종교개혁가들을 되살리려 하거나 종교개혁 운동을 모방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현대에는 오늘날만의 독특한 도전이 있으며, 우리가 사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중세 시대의 유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이다(Horton, 297). 현대 기독교를 위협하는 소비주의의 도전으로부터 기독교

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의 삶을 지켜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과 물질에 대한 용납은 섹스에 대한 인식도 용이하게 했다. 포르노 산업, 동성애, 각종 성상품화로 인해 성적 문란, 에이즈, 낙태, 가정질서의 파괴, 불륜과 이혼의 증가 등 하나님의 질서가 교란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혁주의의 근간인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

III. 소비주의의 확산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인 시장의 원리를 확대시켰다. 이제는 시장의 원리도 세계화, 보편화, 절대화되었다. 사물의 가치가 바로 시장가치, 교환가치로 환원된다. 이는 전통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모든 것, 심지어 인간까지도 상품화되어 시장가치, 교환가치로 평가되었다. 인간에 대한 자본의 비인간적인 지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권진관, 26). 시장경제는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소비주의의 확산을 부추긴다. 오늘날 소비주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 소비사회의 실체

소비주의는 하나의 세계관이며 자본주의 종교의 신앙이다(강성영, 204). 오늘날 소비사회는 바로 이러한 소비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서구의 위대한 두 가지 계명은 “소비하라 더 크게 갈망하라”이다.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환기시켰다. 탐심은 서구 사회와 경제의 DNA다(Jonathan Bonk, 박용규). 위대한 거짓말쟁이 사탄이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탐욕에 눈이 어둡도록 계속 부추길 것이다. 서구는 돈과 물질 소유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 애덤 스미스와 자본주의 경제 이데올로기가 예수의 자리를 대신했다. 그 결과 서구교회는 무섭도록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자신들을 순응시켜 왔다.

소비사회는 의식주의 기본적인 필요를 넘어서 ‘인여와 사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본주의 사회이다. 상품의 소비를 통해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은 인간을 과잉실체에 대한 욕구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 상품의 가치가 인간적 가치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 나아가 소비사회는 양극화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적 재앙을 산출하고 인간의 무절제한 욕구의 추구로 인해 환경적 재앙을 야기한다.

소비사회는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 즉, 욕구에 사로잡혀 주어진 한계를 알지 못하는 소위 소비인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소비주의는 하나의 신앙이며 종교다(강성영, 210). 죄란 바로 자본이 인격화되고 시장이 신성화되어 인간이 상품과 교환되는 가치의 진도현상인 것이며, 이것을 조장하는 소비주의가 바로 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악은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유와 소비의 탐욕이며, 집단적으로는 상품과 자본에 대한 우상숭배에서 초래되는 비인간화이다.

이와 같은 소비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비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개혁주의의 과제이기도 하다(강성영, 212).

2. 소비사회의 특징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하였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인하여 소비욕구가 상승되었다. 그 결

과 소비사회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소비사회란 단순히 삶의 기본적 욕구를 넘어서 물질적, 감각적 욕구의 충족을 무한히 갈망하는 사회, 즉 소비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소비사회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강성영, 205-208).

첫째, 소비사회는 의식주의 기본적 필요를 넘어서 '잉여와 사치'를 추구하는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가리킨다.

둘째, 소비사회는 소비자와 상품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하는 소비능력으로 인간의 가치가 형성되는 소비중심 사회이다.

셋째, 소비사회에서 소비대중은 상품의 소유와 소비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통한 욕구충족을 추구한다.

넷째, 소비사회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소비대중의 허구적, 상상적 욕구를 재생산한다. 소비자는 특정한 재화의 소비를 통해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하면 할수록 결핍을 느끼고 현실세계의 불만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소비사회에서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꾸며진 사용가치, 즉 이미지와 기호가 소비되는 사회이다. 소비사회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잉실체에 대한 욕구의 노예가 되고 인간됨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상품의 가치에 밀려서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섯째, 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했다. 탈산업사회의 시대를 지나며 문화자본주의를 향해 진화했다. 과잉소비가 정점에 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살 것이 없다는 세상이 되었다. 사람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체험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낸다.

일곱째, 소비사회에서 자선, 자비심, 동정심과 상호 부조와 같은 이웃사랑의 도덕적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행위의 규범과 치환된다.

여덟째, 지구적 차원에서 소비의 양극화는 환경의 재앙에 준하는 사회적 비극을 양산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세계의 가장 큰 윤리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홉째, 소비사회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 양극화와 절대빈곤 같은 사회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막화와 생물학적 종의 감소 등 생태악이 자연과 인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것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문화지체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3. 소비사회의 인간

소비사회의 인간은 본회퍼가 말한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형과 같다. 한계를 상실한 인간은 지칠 줄 모르는 욕구에 사로잡혀 타자를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소비인간의 전형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과 소비사회의 인간을 서로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강성영, 210-212).

첫째,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인과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졌으나, 소비인간은 자기를 향한 병적 욕망에서 상품 이외에 다른 관계를 절연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둘째, 타락 후 인간의 삶은 자유의 축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노동하고 해산의 수고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소비인간은 향유를 위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해야 하는 운명적 굴레를 짊어진다.

셋째,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알기에 한계를 깨닫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소비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신과 같이 되어 자기의 운명과 피조세계의 창조주로 군림하고자 한다.

넷째, 소비사회의 인간은 참다운 주체다움을 가진 자유인이 아니라 상품이 주는 과잉실체에 대한 허위욕구에 매인 종속적 존재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타자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소비사회의 인간은 한계를 넘어서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는 지칠 줄 모르는 탐욕의 화신이다.

여섯째, 하나님 없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인간은 그의 욕구와 충족 가능성, 즉 원함과 할 수 있음의 일치만을 추구한다.

일곱째, 피조된 인간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한계의 육체적 현현인 타인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만, 소비인간은 타인의 존재에 대해 증오감을 품고, 병적 욕망 속에서 타인을 저주로 대한다.

여덟째, 하나님의 형상은 세계 안에서 정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주체로 삶을 살지만, 소비인간은 소비에 익숙하도록 본능을 자극하는 광고의 호명을 통해 수동적 주체(소비시민)로 형성된다.

아홉째,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를 통해 살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지만, 소비인간은 개인의 욕구에 사로잡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에 의사주체로서 참여를 강요당한다.

IV. 개혁주의의 대응

1. 개혁주의의 유래

개혁주의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이념과 신조를 말하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자신들을 일컫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한 이름은 복음주의였다. 종교개혁 초기에 개혁의 지지자들은 그들의 교회를 원래의 신적 질서와 생활을 회복했다는 의미에서 자주 개혁된, 교정된, 정화된 교회로 불렀다. 교의학적으로 개혁주의란 이름은 1598년 비루터파주의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영국에서는 개혁파가 30년 전쟁(1618-1648)때까지 복음주의 개신교를 의미했다. 개혁파와 루터파라는 단어의 상징적 의미가 분명한 것은 그 이후였다(Osterhaven, 262).

개혁주의의 기원은 결코 화란이나 장로교가 발전한 스코틀랜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16세기 초와 중엽에 유럽의 다양한 종교개혁의 흐름들이 하나로 모여 형성되었다(Hesselink, 24). 개혁주의를 화란교회와 동일시해선 안된다. 스위스, 헝가리, 프랑스의 주도적인 개신교회가 바로 개혁주의 교회라는 사실이다. 개혁주의는 개혁교단과 장로교단만이 아니라 이 교단들에 속하지 않는 수많은 신자들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교회 그룹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명칭이다. 오늘날 개혁주의는 칼빈의 정신과 사상을 일컫는 것으로 칼빈주의와 동의어로 사용된다(문병호, 61). 또한 참된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는 교회이다. 참된 개혁주의 교회는 신앙을 항상 새롭게 고백한다(Hesselink, 32).

한국교회와 서구교회가 공히 세속화와 소비주의 도전 속에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서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주의의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개혁주의의 원리

1) 개혁주의의 경제관

칼빈주의자들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만, 경제적 영역과 그 외의 영역에서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Hesselink, 70). 칼빈은 루터와는 달리 상업을 인정했다. 칼빈은 물건의 교환을 사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사의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Graham, 109).

리처드 니이버는 어거스틴주의자,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문화 변혁자로 여긴다고 했다.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에 대한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강조는 오늘날에도 몇몇 탁월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신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칼빈주의 전통이란 성경적인 개혁주의적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Hesselink, 112).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가치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다. 칼빈은 우리에게 자연적 인간의 업적과 중생한 자의 은총 속에서의 성장을 정당하게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것을 촉구하는 목적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칼빈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다(Hesselink, 108).

2) 칼빈사상의 중심주제

칼빈사상의 중심 주제는 부란 형제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칼빈이 제네바의 부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규칙이었다. 칼빈은 “그들의 풍요로움은 지나친 무절제를 위하여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궁핍함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맡겨진 것임을 생각하도록 하라.”고 권면했다(Graham, 95-96).

칼빈은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한 재물 분배를 마련해놓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의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게 하고 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만이 선한 노동이라는 것이다. 상업은 어떤 종류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선하다. 노동에 속한 모든 것은 공익의 도구가 되어야지 사회적 압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Graham, 98-118).

칼빈은 모든 사회와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공의와 자선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규범이라고 주장했다(Graham, 134).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비에 있어서도 사랑의 규칙을 경제적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확고하게 고수했다. 후기 중세의 상업이 아주 많은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쳤었지만, 신학에 비추어 긍정적인 면을 통찰한 최초의 인물은 칼빈이었다. 칼빈은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표준을 사랑의 규칙, 공의의 표준으로 판단했다(Graham, 134-138).

3) 하나님의 주권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기본적이며 포괄적인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 사랑과 삶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상관관계의 둘째 부분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앞부분,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할 뿐이다.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 선택, 예정에 관해 더 자주 언급한다(Hesselink, 142).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재물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실 수 있다. 성경은 재물, 특히 과도한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가르친

다(Witherington III, 249).

칼빈은 기독교강요(Lv)에서 현세의 사용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다. 현세의 사물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일에 관해 칼빈이 근거를 두었던 원리는 성경으로부터 유래했다(Osterhaven, 193).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창조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둘째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지상의 것들에 대해 탐욕을 동반하는 부에 대한 욕망을 잘못 발전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칼빈은 그의 논의를 이 세상의 물질을 탐내는 것에 대한 경고와 기독교적 청지기 의식에 대한 진술로 마무리했다(강요 3.x.5) 이 논의는 피조물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인식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대로 그것이 사용되고 즐겨져야 한다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Osterhaven, 196).

4) 경건의 실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과 탐욕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바울은 탐욕과 욕심에 중독된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돈과 이윤이라는 또 다른 해결책에 중독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다. 재물에 대한 갈망은 결국 우상이 된다. 그 우상에 사로 잡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삶의 만족과 도움을 구하게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욕망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을 강조한다(Witherington III, 199). 경건의 실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16세기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 경건의 실천을 중시해 왔다. 칼빈주의는 그 시작부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다. 칼빈주의의 관심은 모든 불의한 것들로부터 구속받아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있었다. 종교개혁 후기부터 수세기 동안 화란개혁교회는 경건의 연습을 표지로 삼았다(Osterhaven, 215).

현대복음주의 또는 개혁주의 교회가 현대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증언하는 유력하고 성경적인 방식은 정통신앙이 함의하는 윤리적 삶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윤리적 삶은 반드시 개인을 넘어 교회의 차원에서 발생해야 하며, 교회의 회복은 절실하고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 교리의 재발견과 함께 윤리의 재발견이 오늘날 매우 중요하다.

5) 칼빈의 구원관

칼빈주의 5대교리 중의 두드러진 항목은 전적 부패이다. 죄는 전적으로 모든 선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며 무능케 하며, 모든 것을 반대하게 하며,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이 원래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는 오직 저주받을 것들만 나온다. 타락의 결과 모든 사람은 죄 중에서 잉태되었으며 진노의 자식이며 구원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에 빠지기 쉬우며, 죄의 노예로 출생했다(도르트 신경)(Hesselink, 78).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인간본성 가운데 어느 부분도 우리의 이성, 의지, 육체까지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다.

칼빈주의 세계관은 창조와 타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속을 말한다. 인간과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원래 창조의 선한 의도대로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 일어날 것으로 말한다.

주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다. 타락으로 인해 순전함을 잃어버린 인류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순수한 지식도, 의지도 상실했다. 그러므로 오직 영원한 작정에 따른 언약의 선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대속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신 구원이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성도는 이런 믿음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삶을 살아야 한다(문병호, 83-84)

6) 사회적 책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번성케 할 책임을 지닌 존재라고 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무한한 창조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맥도날드화에서 나타나는 주된 양상인 일상의 정해진 반복을 통한 효율성 증대는 창조주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질적 창조성과 창조를 지속 발전시키라는 명령과 어긋나게 된다. 인간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반응을 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며 환경을 극복하고 초월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자신의 내재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김선일, 24-25).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다(Osterhaven, 223).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세상에서 화해의 대행자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역동적인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교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세속주의를 두려워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봉사라는 우리의 비전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섬기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시대의 심각할 정도로 확산된 세속주의 때문이다. 마이런 B. 펜너(Myron B. Penner)는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포스트모더니티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은 포스트모던으로의 전환을 무시하거나 그것으로부터 후퇴하지 않고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들을 다루어야 하며 그것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신현수, 261-262).

V. 결론

칼빈의 영향으로 중세 후기 상업은 활발하게 발달되었다. 그것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로 발전되었는데,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오늘날 자본주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세속주의인 소비주의를 배태하였다. 소비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현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세속적 물질주의라 하겠다. 종교개혁이 자본주의의 발달을 도모했는데, 그 결과 소비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주의로 등장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소비주의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유산인 개혁주의의 원리와 정신이 요청된다. 특히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주의적이며, 칼빈주의 세계관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윤종훈, 260).

종교개혁 당시에도 사치금지법, 노름금지법 등의 사치풍조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제도적인 노력들이 있었다(Graham, 163-172). 중세의 종교개혁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갱신하고, 그들을 성경과 하나님께로 돌아가 경건하게 살도록 했던 신앙적 혁신 운동이었다. 그런 정신은 칼빈의 사상을 계승한 개혁주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칼빈의 상업과 사업에 대한 관대함과 지지가 자본주의의 발달을 촉발하긴 했지만, 그 결과인 소비주의를 허용했다고 보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상업에 대한 허용은 하나님의 소명과 선한 뜻의 실현을 위해 재능과 재물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의 남용과 탐욕적 소모까지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

절제와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칼빈 정신의 근본이다. 개혁주의는 소비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다. 종교개혁시대에서는 근검과 절약을 미덕으로 간주한 반면, 오늘날 소비사회에서는 쾌락과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한다. 이는 대량생산 시스템 경제에서는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국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량소비는 부존자원의 한계와 대량폐기로 말미암는 생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지구의 생태 위기를 생각한다면, 근검절약의 검소한 생활방식이 요구된다. 소비주의 시대의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소비생활에 절약과 절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실천 행위라 할 수 있다. 검소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 것도 소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되 건강하고 가치있게 분수를 지키며 소비하는 것을 가리킨다(조용훈, 289).

따라서, 오늘날 개혁주의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칼빈의 정신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개혁주의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의 정신과 개혁주의 원리는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는 것이다. 물질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 하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 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며, 탐심을 말씀과 성령의 제어 가운데 두어야 한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개혁주의의 원리와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소비주의를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성영(2007), “소비사회의 인간 이해: ‘광고’를 통해 본 욕구와 한계의 변증법,” 신학논총, 138, 203-224.
- 김선일(2012), “맥도날드화와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학문』, 17(4), 7-31.
- 권진관(1992), “강화되는 자본주의의 원리와 기독교의 과제,” 『기독교사상』, 36(12), 25-32.
- 윤중훈(2005), “칼빈주의 세계관과 문화명령에 관한 개혁주의적 소고,” 『신학지남』, 72(4), 257-284.
- 신현수(2014), “<선교적 교회운동>에 대한 개혁주의 선교신학적 비평적 이해,” 318, 『신학지남』, 258-271.
- 조용훈(2008), “아동의 소비주의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의견,” 기독교사회윤리, 16, 267-289.
- 문병호(2013),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신학과 신앙의 요체,” 개혁논총, 27, 61-93.
- Jonathan Bonk, 박용규(2011), “교회의 새로운 길 진단,” 『국민일보』, 12월 8일자.
- Ben Witherington III(2010), Jesus and Money, 김미연 역(2016), 『예수님의 경제학강의』, 서울: 넥서스.
- John Hesselink(1983), On Being Reforme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nd Common Misunderstandings, 최덕성 역(2003), 『개혁주의 전통』, 서울: 본문과 현장사이.
- M. Eugene Osterhaven(1971), The Spirit of the Reformed Tradition, 최덕성 역(2005), 『개혁주의 전통의 정신』, 서울: 본문과 현장 사이.
- Michael S. Horton(2002),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역(2014),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사.
- W. Fred Graham(1971),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1986),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